

# 광주시의회 '용적률 상향 조례' 토론회 공개 여부 갈팡질팡

### 오늘 정책토론회 후 중심상업지구 주거 용적률 규제 완화 재표결 신수정 의장 공개 방침... 실무자들 "자율 토론 위해 비공개 진행해야"

광주시의회가 23일 중심상업지구 내 주거 시설 용적률 규제 완화 조례의 재표결을 앞두고 비공개 정책 토론회를 열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22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23일부터 열리는 제 333회 임시회에서 광주시가 재의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에 대한 표결이 진행될 예정이다.

시의회는 표결에 앞서 시의원들의 정책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23일 도시계획조례 재의요구 관련 제131차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에서는 용적률 상향 관련 연구를 담당한 광주연구원원의 발제가 진행된다. 이 자리에는 상인회 관계자, 시담당 국장, 시민사회 단체 추천 교수와 관계자 등이 토론자로 참여할 예정이다.

광주시의회는 당초 의원들의 객관적인 판단과 자율적인 토론 등을 돕기 위해 이번 정책 토론회를 시의원을 대상으로만 열기로 했다. 사실상 비공개로 열겠다는 것이었다.

도시계획과 관련된 민감한 사안인 점과 의원들 간의 자유로운 질의와 토론 등을 고려한 조치였다.

하지만 이번 토론회를 주최하는 신수정 의장은 정책토론회를 공개하겠다는 방침이다. 비공개 정책토론회는 9대 의회에서는 처음이고 이례적이라 점에서다. 토론회를 하루 앞두고 시의회 의장과 시의회 실무자들 간의 의견이 갈리고 있는 셈이다.

시민사회단체는 토론회 자체를 공개하고 이번 토론회 한편으로 의결을 하지 말고 숙고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회 공공안정을 해치거나 개인정보가 공개되는 등의 사유가 아니라면 공개가 맞다는 점에서도.

**?** 용적률 건물연면적을 토지면적으로 나눈 비율로 용적률이 높을수록 토지면적 대비 건축연면적이 넓다는 것이고, 용적률 상향은 곧 건물이고 층으로 올라간다는 의미다. 용적률이 높은 토지의 부동산 가치가 용적률이 낮은 토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 일반적이다. 우리나라에서 허용되는 용적률은 80~1500% 범위지만, 도시 주거지역은 최대 500%까지 올릴 수 있고, 지자체의 조례에 의해 규제된다.

정책토론회는 광주시의회 기본조례(67조)를 근거로 주요 현안사안에 대해 개최를 해 시민, 이해관계자,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자리로 마련된다.

또 같은 조례에는 시민이 의정활동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예외적인 비공개를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고 한다.

기우식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은 "당초 논 의쟁점이 모두 드러난 사안이고 해당 내용이 특정인에 대한 개인정보를 담고 있을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공개가 맞는 것"이라면서 "또 해당 조례에 이견이 다양하게 존재하는 만큼 한번의 토론회를 통해 결정하기보다는 숙고의 시간을 가져 광주지역 발전을 위한 방향으로 결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광주시의회는 지난 2월 본회의에서 충장·금남로, 상무지구, 첨단지구 등 중심상업지역의 주



"빛소리 들으며 숲길 걸어요" 장맛비가 지나간 22일 담양군 봉산면에 위치한 민간정원 2호 '죽화경'을 찾은 휴양객들이 짙어진 초록의 숲길을 거닐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거 용적률 규제를 400% 이하에서 540% 이하로 완화하는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광주시는 조례 개정에 따라 상·중·하 업무·편의 기능을 담당하는 중심상업지역의 주거화가 가속화 되면 위락·숙박시설과 주거시설이 혼재해 난개발,

교통 혼잡, 교욱환경 저하, 아파트 미분양 심화 등이 우려되는 점과 용적률 적용표의 '연면적 비율'이 비주거나 주거로 중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재의를 요구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시의회가 조례 의결 후 5일

이내에 지자체장에게 이송하면 지자체장은 20일 이내에 조례를 공포하거나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재의된 안건은 시의회 재적 의원(23명) 과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여름 바다 불청객 적조 피해 줄이자"

### 전남도, 299억원 투입...감시망 확대·방제장비 점검 등

전남도는 22일 "총 299억원을 지원해 적조 대응 체계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적조 피해 최소화를 위해 '2025년 적조 대책위원회'를 열고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올해 적조는 7월 중순경 발생 가능성이 크다. 다만 이상기후로 인한 해상 환경 변화 가능성이 크고 장마와 태풍 등의 기상상황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전남도는 적조 발생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올해 감시망 확대, 방제장비 사전점검, 기관 간 협력체계 정비 등을 통한 선제 대응에 나선다. 도는 사전 예방과 현장 대응력 강화에 방점을 두고 적조 대응 장비 등 5개 분야에 총 299억원을 지원한다.

전남도는 양식장도 방제장비 점검을 지속 실시하고, 어업인 대상 적조대응 교육과 정보 제공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적조 발생 시 긴급 방류를 유도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황토 살포 및 산소공급장비 투입을 서두를 계획이다.

대응 체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관계기관과의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국립수산과학원과 해양

수산과학원은 예찰 정보의 도와 신속하게 공유하기로 했고 합동 조사에서 나설 방침이다. 전남도는 또 서해지방해양경찰청에 해상·항공 예찰 및 방제장비 운송 지원을 요청했고, 수협에는 적조대응 요령 홍보, 시군에는 방제장비 점검과 비상 대응체계 유지를 당부했다.

전남도는 적조발생에 따른 수산물 소비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유통업체와 생산자가 함께 참여하는 상생협약체계를 중심으로 조기 출하를 유도하는 등 소비촉진 대책도 적극 추진한다.

전남도는 이와함께 오는 26일 여수 남면 화태 해역에서 민·관 합동 실전 대응 훈련을 진행한다. 훈련은 적조와 고수온 대비하는 내용으로 해양수산부와 국립수산과학원, 전남도, 여수시, 해양수산과학원, 해경, 수협, 어업인 등이 참여해 현장 점검 차원으로 이뤄질 계획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이상기후 영향으로 적조 발생 양상은 지속해서 복잡해지고 있다"며 "도 주도의 대응체계를 통해 감시부터 방제, 복구까지 빈틈없이 준비해 수산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선 넘는 여행'으로 광주·전남 잇는다

### MZ세대 릴스 챌린지·1박2일 팸투어 등 콘텐츠 개발

광주시가 광주와 전남을 잇는 관광 콘텐츠를 개발해 호남관광 활성화에 나선다.

22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와 전남을 잇는 이색적인 여행 콘텐츠 '선 넘는 여행'의 첫 영상을 선보였다.

'선 넘는 여행'은 광주 중심의 홍보에서 한 발 더 나아가 광주의 문화·산업과 전남의 자연자원을 연계한 1박2일 코스를 시인 참여형 콘텐츠로 구성해 선보이는 사업이다.

광주와 전남의 매력을 동시에 알리고, 방문객에게 더욱 특별하고 깊이 있는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영상은 광주 댄스팀 '빛고을댄서스'의 리더 오천이 출연하는 예고편으로 시작해 4편의 영상이 광주시 홍보종합플랫폼 '모두의 광주'를 통해 순차적으로 공개된다.

1편 '감성여행 MZ투어: 열정 광주 VS 힐링 담양'은 엠제트(MZ)세대 대학생들이 두 팀으로 나눠 각각 광주와 담양을 여행한 뒤 이를 릴스 형식

의 짧은 영상으로 제작해 지난 20일 공개됐다.

2편 '세대공감-손자투어', 3편 '여름휴가는 탄소저감여행', 4편 모두의 축제 등의 콘텐츠가 이어져 다양한 연령대와 관심을 모을 것으로 광주시는 기대하고 있다.

광주시는 MZ세대 인플루언서 및 1인 크리에이터를 대상으로 광주관광공사와 함께 테마형 팸투어도 추진한다.

7월 17~18일 1박2일 일정으로 총 10명을 초청해 광주 도심에서 야구 특화 관광상품인 '야구광 트립'과 담양 죽녹원에서 힐링 프로그램을 체험하고 전남 인접 시·군과 산업·역사 등 다양한 주제의 팸투어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박광석 광주시 대변인은 "기존의 홍보 중심의 정책을 넘어서 문화·산업·환경 등 다방면에서 광주와 전남이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것"이라며 "시민 체험 콘텐츠와 팸투어를 통해 '2025 광주 방문의 해'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새싹그리기 축제

접수기간  
**2025. 06. 30(월)**  
~ **07. 03(목)**

**개요 : 작품 공모**

- (1) 대상 : 전국 미취학 어린이
- (2) 시상 : 금상, 은상, 동상
- (3) 접수기간 : 2025년 6월 30일(월) ~ 7월 3일(목)  
- 인터넷/모바일신청 : <http://art.kjmedia.co.kr> (온라인 카드결제 실시간가능)  
\* 호남예술제 홈페이지에 신청접수 후 작품을 우편 발송
- (4) 결과발표 : 2025년 7월 16일(수/예정), 호남예술제 홈페이지에 발표
- (5) 작품크기 : 8절
- (6) 주제 : 제한 없음

**참가**

- (1) 참가비 : 10,000원 (20명 이상 단체 할인 7,000원)  
\* 단체접수 문의 : 062-220-0541
- (2) 접수처 : 광주일보사 문화사업국 새싹그리기축제 담당자 양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SC제일은행빌딩 10층 (우61482)  
\* 작품 뒷면에 반드시 <유치원명 또는 학원명, 반이름, 주소, 이름, 나이, 연락처> 기입바랍니다.  
\* 단체참가의 경우 메일로 명단을 발송바랍니다.

**유의사항**

- (1) 출품된 모든 작품의 판권 및 저작권은 광주일보사에 귀속되며 반환하지 않음.
- (2) 우편접수 시 작품이 훼손되지 않도록 포장상태에 유의하기 바람.
- (3) 본인의 작품이 아니거나 심사대상에 결격 사유가 인정될 시 심사에서 제외됨.
- (4) 공지내역 외 사항은 일반적인 대회요강에 준함.

문의 062-220-0541 / <http://art.kjmedia.co.kr>  
주최 광주일보·(사)아시아문화